

보살의 길

2013년 봄호 제 52호



주 1회 요보호어르신 작업치료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따스한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박혜정 사무국장

마음에는 벌써 봄이 찾아온 지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4월입니다. 햇살이 온기를 되찾아가고 해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며칠 있어 봄이 온 줄 알았더니, 아직은 봄이 멀었나 봅니다. 4월의 따스한 햇살을 기대하며 온전한 봄을 느낄 수 곳에서 봄은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바로 우리 양로원의 정원에 산수유가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명양로원 신입 사무국장으로서 일하게 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 자원봉사자님들께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는 어렵고, 많은 고민과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걱정도 되지만, 조금씩 두려움을 이겨내다 보면 찾아오는 봄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지나가고 뜻 깊고 의미 있는 날들이 오리라고 여겨집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오랫동안 힘든 과정을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일하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고 '늘 처음처럼'이라는 단어를 새기면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들의 노력과 정성의 큰 뜻을 항상 공유하고자 합니다. 20년 동안 해명양로원의 역사와 함께 해 왔고, 사회복지의 변화과정도 몸으로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후원자님과 봉사자님들도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많이 본 분이었습니다. 혹시 전에 양로원에 봉사 오셨던 분인지 물으니 그랬다 하시며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도 어느덧 머리에 세월의 흔적이 많이 생겼더군요. 저 또한 많이 변해 있었겠지요.

제가 사무국장인 이후 아침에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면서 참회기도를 하고, 우리 양로원의 가족들, 후원자님, 봉사자, 직원들을 위한 기도를 한 후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항상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하고 지내다가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나 혼자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함께 가야 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양로원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로원에도 봄이 시작되어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양로원이 어느 날 갑자기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우리 집이 편하고 좋다고 표현하듯이 항상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모두가 찾아오고 싶은 양로원,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양로원으로 만드는 데 열정을 쏟아 활기차고 행복한 양로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정 사무국장님은 우리양로원에서 20년 근무하여 2013년 1월 1일로 승진하신 분입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을 지도하며

박정원 강사((주)웰케어코리아)

해명양로원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온 지금 처음 양로원을 방문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양로원을 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수업을 준비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고령에 잘 걷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도 그럴 것이 보건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장시간 걸을 수 있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시기에 40~50대 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동지도가 수월했던 것 뿐 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제가 낮이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어려워 하시고 운동지도 시간에 호응도 또한 낮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은 얼마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르신들이 저를 반가워 해 주시고, 제 운동시간 10분 전부터 자리를 잡고 기다리시는 모습에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하는 날이라도 오면 그 다음 시간에 보고 싶었다며 손을 잡아 주시고, 운동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기다려 진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본인들의 간식을 아껴 두었다가 집에 가는 길에 먹으라며 손에 쥐어줄 때에는 마치 친할머니 같아 업무상 방문을 드린 것이 아닌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공기간이 다 끝나서 당장은 올 수 없겠지만 가끔 방문하여 안부를 여쭙고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우덕이를 부르자



한일성 어르신

1860년대 초 대원군의 초청을 받고 안성에서 한양 경복궁 중건현장으로 올라와 그 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일꾼들을 위해 매일매일 경복궁내에서 공연을 지속해 달라는 명령 때문에 '바우덕이'는 뜬쇠, 가열, 뼈리, 덧배기쇠 등을 이끌고 꿈도 꾸지 못했던 한양공연을 하며 그로 인해 둘러싼 대사건의 이모저모를 연출해 낸다. 어느덧 근정전이 낙성되던 날 대원군이 남사당패를 불러 영기(令旗)에 손수 "옥관자"를 달아 준다. 이는 "바우덕이"의 영광인 동시에 안성남사당패의 커다란 기쁨이기도 했다.

바우덕이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나 수입은 예상밖으로 저조해 동료들을 위해 보리쌀을 얻어 죽을 끓여야만 했다. 이런 모습이 조선시대 말엽 이땅에 꽃피기 시작했던 대중예술의 현실이었다. 남사당패의 여주인공인 "바우덕이"는 자신의 병세가 쉽사리 회복될 김새가 보이지 않자 자신을 위해 3년째 병구완을 해오고 있던 나이 많은 이경화에게 "내가 죽으면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묻어 달라" 고 한다. 그리고 바우덕이 죽고 이경화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냇가에 가서 피리를 불다 돌아 왔다. 시묘(侍墓)라면 시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이라면 인생이었다.

미모가 뛰어나고 가창력이 우수하며 재주까지 범상치 않았던 "바우덕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으로 마땅했다고 본다.

바우덕이의 활동무대가 안성청룡이다보니 안성시장을 중심으로 오가는 풍부한 물산에 섞여 바우덕이의 명성은 팔도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바우덕이를 둘러싼 시(詩)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전설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 한일성어르신(89세)은 2012년 2월에 입소하셨다. 책을 너무 좋아하여 하루종일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혜명한마당



| 심폐소생술 훈련 |

2월 14일 구로소방서에서 내방하여 입소자와 직원들에게 응급환자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훈련을 직접해 주셨습니다.



| 척사대회 |

2월 25일 대보름을 맞아 입소어르신들과 남·여 대항 척사대회를 했습니다. 예선전을 거쳐 각각 남녀 2팀씩 올라와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할아버지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 자원봉사 간담회 |

4월 3일 자원봉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박해정사무국장님 인사말씀과 양로원 현황 보고, 조수미강사의 행복바이러스 강연이 있었습니다. 바쁜시간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시설운영위원 회의 |

2월 18일 시설운영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 5명을 모시고 예산과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며 많은 조언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 생신잔치 |

매달 입소자 중 생신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생신잔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엔 9명, 2월엔 2명, 3월엔 6명이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만수무강하세요.



| 간호사 |

한달에 한번씩 혈압을 체크하여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박정숙 어르신들의 혈압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



| 영양사 |

2월 8일 설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손수 만두를 빚어서 설날아침에 떡만두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 생활지도원 |

매주화요일은 요보호어르신 작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악기연주, 꽃화분만들기, 만다라색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기능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물리치료 |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김석이 어르신은 서서하는 운동보다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누워서 하는 운동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혜명동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 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직원현황

- ▶ 총 16명
-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시설과장 1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5명/ 물리치료사 1명
위생원 1명/ 서무 1명/ 조리원 2명

현재 입소인원 (3월 31일 기준)

- ▶ 총 59명 할아버지 : 24명 할머니 : 35명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 신입직원을 소개합니다.

- 1월 1일 입사 김숙정간호사
- 1월 14일 입사 박분녀위생원
- 3월 30일 입사 이금옥조리원

혜명양로원에 새로운 가족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남부교도소 물품후원

매월 방문하여 재소자 자원봉사와 원에 필요한
후원품을 주시고 있습니다.

4월은 청소기 2대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지원봉사자

2013년 1월 1일 ~ 3월 31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한상애, 이양숙, 김용래(밀그림색칠화사회), 문덕녀, 박소선(대림미용실),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조규용, 김용기, 유만수(한방침술봉사팀), 오정은(건강체조), 백련사올림회, 오정자, 한미옥, 김동진, 조혜숙, 김영순(아코디언), 박미란(말벗), 김동섭, 최지현, 한은옥, 남미영, 최소희, 윤정빈(우담바라), 소미숙, 김미정, 이정순, 이유정, 박계남(민들레모임), 이강택, 임효정, 한미옥, 이승희, 이정애, 진명자, 곽정숙, 양승학(알송달송구연동회), 신숙례, 전옥선, 고준자, 박광예, 이원자, 이득남, 김영미, 이정조, 임태경, 김철호(자비나눔예술봉사단), 문용희, 손인평, 김영중, 박상근, 진선호, 손명숙(메아리예술공연단), 성낙권, 박종보, 손선희, 백영일, 조용대(삼운회), 김소연(행복날개수련원)

후원자

후원물품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도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입소자 지인, 입소자 가족, 이침봉사팀, 금천푸드뱅크, 서대문구민주평화통일협의회, 한승주, 박재근원장님, 삼운회, 백련사, 자비나눔예술봉사단, 박미란, 혜명보육원, 치공봉사단혜명회, 사랑의실천운동본부, 이재임, 삼화양행, 이윤분, 이유정, 불교회관, 금천구청, 인천보살님, 남부교도소, 백승미, 금천문화원무용팀, 김정상, gs리테일, 알송달송공연팀, 색칠자원봉사단, 독지가, 김이환 · 신영숙 내외분

후원금품

| | | | | | |
|-------------------|---------------------|---------------|-------------|----------------|-------------|
| 이의인 90,000 | 윤재순 60,000 | 박성수 90,000 | 최형기 30,000 | 권기상 150,000 | 문금자 30,000 |
| 구봉순 20,000 | 이정호 20,000 | 한국거래소 600,000 | 김연숙 60,000 | 한진택 300,000 | 조관우 30,000 |
| 강윤호 100,00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0,000 | | 박혜정 40,000 | 양보금 30,000 | 안효주 600,000 |
| 마희전 40,000 | 박세진 20,000 | 이순자 20,000 | 박두영 200,000 | 구수미 200,000 | 구충수 300,000 |
| 임옥수 300,000 | 황준순 15,000 | 이성현 10,000 | 황재욱 15,000 | 박영자 10,000 | 박성자 15,000 |
| 한명숙 200,000 | 이마트 52,060 | 박기완 60,000 | 한미옥 20,000 | 이종민 15,000 | 박재화 10,000 |
| 고은주 10,000 | 파리바게트 95,410 | 김애순 10,000 | 홍순의 10,000 | 박분여 10,000 | 황순현 10,000 |
| 하미숙 10,000 | 한고운 3,000 | 박혜순 10,000 | 송은지 5,000 | 송준우 5,000 | 이창열 10,000 |
| 김선광(믿음주주소) 35,000 | | 김홍수 10,000 | 송진희 10,000 | 박재근원장님 590,000 | |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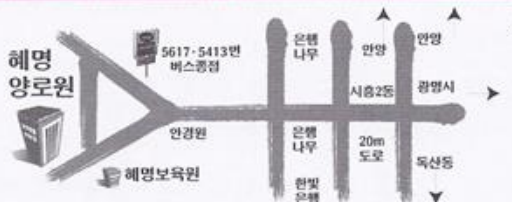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① 지로번호 : 7655940
- ①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① 예금주 : 해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해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해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마을 버스 1번 범일운수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5525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해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